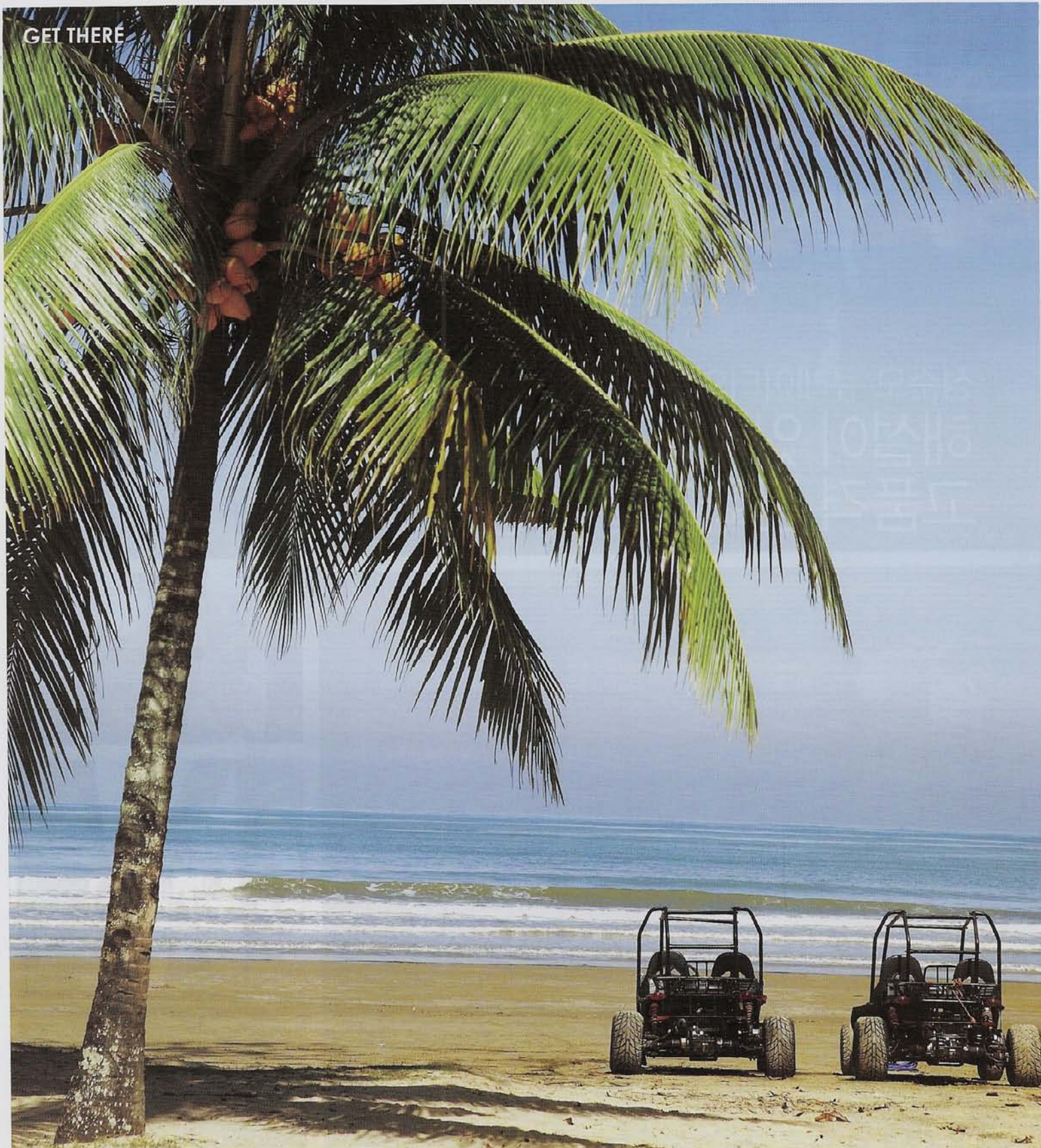


GET THERE



코타키나발루의 보물 찾기

# 17 REASONS TO GO TO KOTA KINABALU

클 도윤경 기자 | 사진 정영주 | 하나투어 전문판매점 더존투어(주) | Tel. 1600-6578 | [www.BetterTour.co.kr](http://www.BetterTour.co.kr)

웅장한 산과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럭셔리한 리조트와 금잔디가 반기는 골프장까지, 환상적인 여행의 모든 요소를 갖춘 코타키나발루는 날이 까다로워지는 여행객들의 입맛을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한 곳. 하지만 그림 같은 풍광 속에는 기대한 것 이상의 더 큰 즐거움이 숨겨져 있다. 재충전, 어릴 적 꿈과 호기심의 충족, 거기에 모험과 낭만까지 채우고 싶다면 지금 당장 코타키나발루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것. '언젠가'를 기약하기에는 너무 늦은, 냉큼 떠나야 할 17가지 이유가 여기에 있다.



### 1 회전식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만찬 **툰무스타파**

사바 시내 북쪽에 인접한 리키스만을 따라 4km쯤 가면 황금빛의 최신 고층 빌딩이 눈에 띈다. 일명 건전지 빌딩으로 불리는 툰무스타파 빌딩은 시골스러운 소박한 분위기의 코타키나발루에서 가장 높고 최신식으로 지어져 코타키나발루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 건물 1층에는 작은 박물관이 있고 대부분의 층은 건너편에 있는 사바주정사의 업무를 분담하는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 18층의 회전식 레스토랑은 코타키나발루에서도 고급으로 꼽히는 곳. 1시간에 약 4회 회전하는데 석양을 감상하며 식사하는 기분은 가치 환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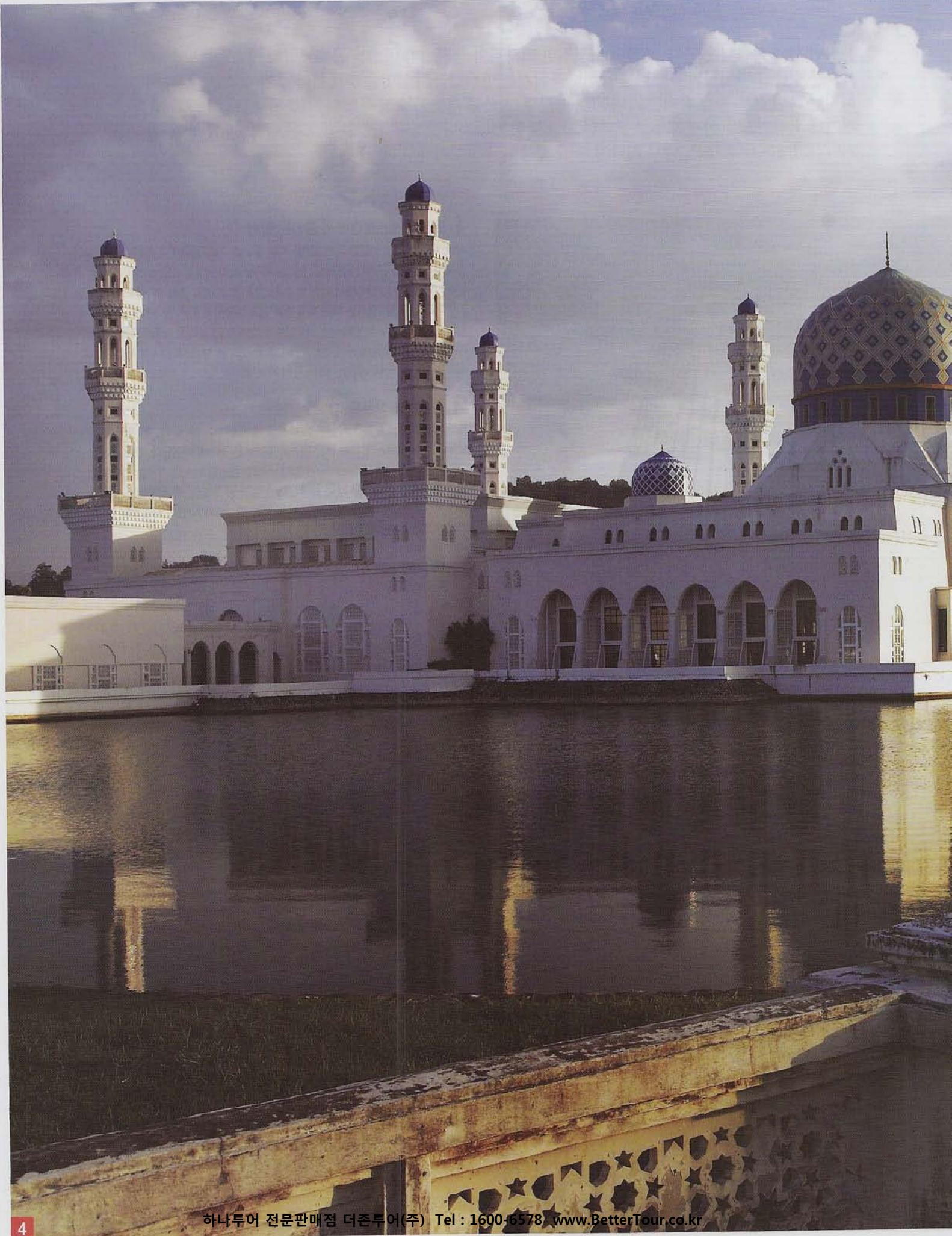
### 2 프리포즈 성공률 100% **선셋**

코타키나발루는 '항울한 석양의 섬'으로도 명성이 높다. 해 질 녘이면 항구마다 모두 붉게 타오르는데 마치 붉은 물감을 칠해놓은 것처럼 아름답다. 그래서 해변 근처에는 유독 선셋 바(Sunset Bar)가 많다. 칵테일 한잔을 마시며 석양을 감상하고 있다 보면 태양의 놀라운 채색 실력 앞에 눈물이 날 정도다. 혹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코타키나발루의 해변에서 청혼을 해볼 것. 코타키나발루 사람들이 믿에 따르면 100% 성공률을 보장한다.



### 3 가격은 저렴하고 인심은 후한 **선데이 마켓**

밤에 시내 투어를 하고 호텔로 가기 전 아침거리를 사고 싶다면 신수란가 해변에 자리한 필리핀 마켓으로 가보자. 기름기를 쫓 뺀 닭꼬치와 생선구이를 비롯해 각종 튀김과 연유 등 술 안줏거리가 풍부하다. 또한 망고와 람부탄, 망고스틴 같은 열대 과일을 우리나라 돈으로 3천원 정도면 한 봉지 가득 살 수 있다. 우리나라 제래시장이처럼 흥정이 가능하고 말만 잘하면 넘치지 받을 수 있다. 혹 여행 중 일요일이 끼어 있다면 시청 앞 가야 거리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선데이 마켓'을 꼭 구경할 것. 좁다란 길 양쪽으로 빼곡히 좌편이 들어서 있어 오갈 때마다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치게 되지만, 짜증이 나기보다는 오히려 흥겨운 기분이 들 정도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커피, 한약재, 관상어, 꽃, 옷, 과일, 목각 장식품 등 우리나라 화개장터미양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 문래는 현지인들이 생필품을 사고파는 시장이었는데, 최근 관광객들 사이에 이름이 높아지면서 일상적인 물건보다는 독특한 소품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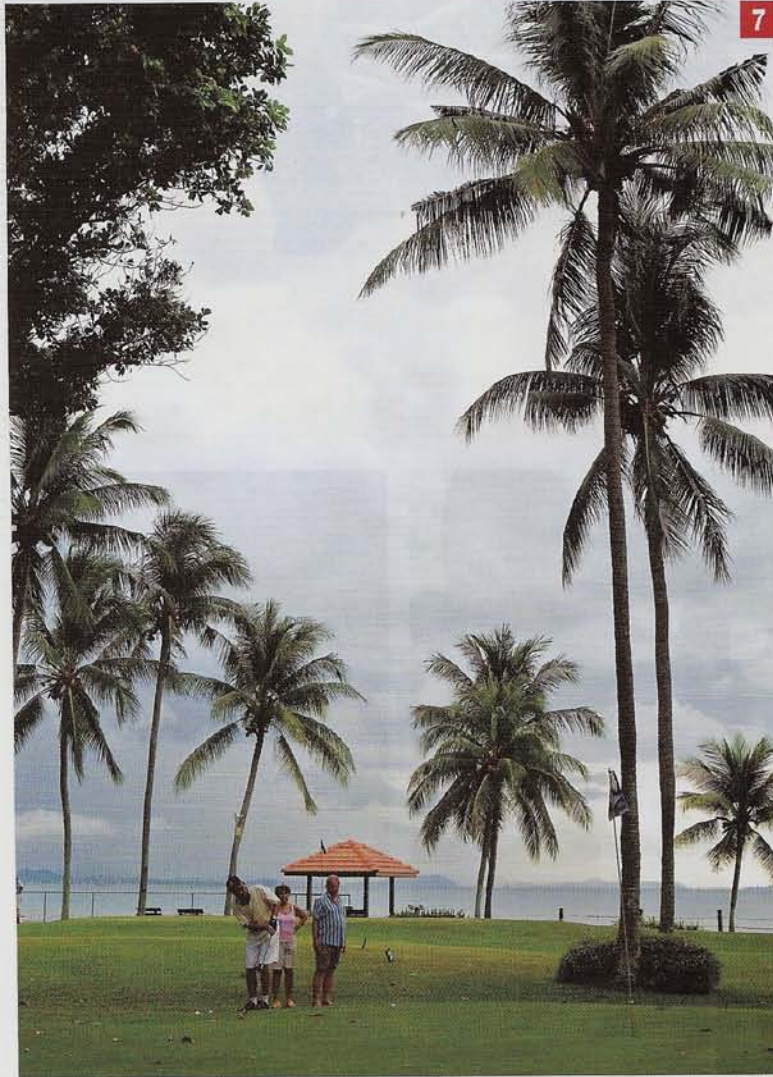




5



6



7



8

#### 4 이슬람과 중국으로의 시간 여행 **모스크 & 불교사원**

코타키나발루 시내의 사바 주립 모스크 앞에 서면 마치 아랍의 어느 나라에 온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코타키나발루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사바 주립 모스크는 세계 3대 사원 중 하나로 물 위에 지어져 있는데 진진한 수면 위로 모스크가 그대로 반사되어 나타나는 형상은 신비하기까지 하다. 정육각형의 순금 판으로 덮인 돛, 벽면과 기둥에 순금으로 새겨 넣은 코란 경구가 엄숙함을 더해준다. 예배시간을 제외하면 일반인들도 안에 들어가 구경할 수 있다.

아나남에 위치한 보타사는 코타키나발루에서 제일 오래된 불교사원으로 중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흔히 보는 불상과는 다른 보살상이 인상적, 소원을 들어준다는 선인장은 믿음 때문인지 사람들이 새겨놓은 이름으로 가득하다.

#### 5 코에 향기롭고 입에 단 **커피 빵**

코타키나발루에서 가장 맛있는 먹을거리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열에 일곱은 커피 빵을 이야기한다. 많은 군것질거리 중 왜 하필 '빵' 이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일단 그 냄새를 맡으면 입에 침이 고이고, 그 맛을 보게 되면 어느새 '하나 더' 들 외치게 된다. 코타키나발루의 변화가인 센터 포인트 쇼핑몰에 자리한 'Tuah Baker' 라는 이름의 커피 빵 가게는 한 평 정도로 작지만 하루 1500개 이상의 빵을 팔 만큼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이다. 얼마 전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로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한국에서도 커피 빵을 맛볼 수 있게 되었는데 따끈따끈함과 구수함, 그리고 쫄깃함은 원조를 따라잡을 수 없다. 둥근 모양의 커피 빵은 우리나라 호빵의 두 배 정도 크기로 겉면은 바삭한 커피 크림이 토핑되어 있고, 속은 고소한 버터가 녹아들어 있어 달달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난다. 가격은 하나에 1,600링깃,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원 정도, 가격이 저렴해서 주머니가 가벼운 여행객들에게 훌륭한 한 끼 식사로 사랑받을 만하다. 센터 포인트 4층에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영업한다.

#### 6 스노클링의 천국 **호핑 투어**

코타키나발루의 바다는 키나발루 산의 아름다움에 뒤지지 않는다. 튼튼 압둘라만 해양국립공원은 사피, 마무틱, 마누칸, 가야, 슈그 5개의 섬을 묶어 만든 해양국립공원이다. 잠시라도 짬 내 호핑 투어를 해볼 만한 곳이다. 수심이 깊지 않은 데다 물이 맑아 스노클링을 하는 데 그만이다.

#### 7 그린 웅단이 깔린 **골프장**

코타키나발루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현대문명이 조화를 이뤄 휴가와 골프를 동시에 즐기려는 골퍼들의 낙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제대로 황제 골프를 즐기고 싶다면 라사리아 달릿베이 골프클럽으로 향할 것. 코타키나발루 공항에서 차로 40분을 달리면 상그릴라 라사리아 리조트가 운영하는 18홀 규모의 달릿베이 골프클럽이 넓은 바다와 어우러져 눈앞에 펼쳐진다. 라사리아 리조트는 아름다운 쪽빛의 남중국해와 접하고 있는 데다 동남아시아 최고봉인 키나발루 산을 등지고 있어 수려한 풍경을 자랑한다. 해안선의 지리적 조건을 최대한 살린 165에이커 크기의 광활한 페어웨이를 보유하고 있어 여유롭게 라운딩을 할 수 있으며, 수많은 벙커와 습지가 조성되어 있어 다이내믹함을 즐기는 골퍼들에게 안성맞춤이다.

#### 8 신나는 급류 타기 **래프팅**

코타키나발루의 급류 타기는 파다스와 키올루 강 두 곳에서 주로 이뤄진다. 키올루 래프팅은 초보자들이 하기 쉬운 평이한 코스인 래프팅으로 어린이들 동반한 가족이 즐기기에 적합하며, 파다스 래프팅은 약간 물살이 거세고 난이도가 있어 역동적인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일맞다. 래프팅하는 동안 스태프들이 카누를 타고 오가면서 비디오 촬영과 사진 촬영을 해주므로 래프팅이 끝난 후 점심을 먹으면서 동영상도 볼 수 있고, 기념 사진도 구입할 수 있다.

## 9 모험과 스릴 만점 **KK 어드벤처 파크**

코타키나발루 시내에서 약 30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곳은 마치 우리나라 유격 훈련장을 연상시킨다. 임벽 등반과 플라잉 팩스 같은 고공낙하 연습 시설을 통해 덤력을 키울 수 있고 정글과 해변을 ATV와 GO-CART를 타고 힘껏 내달릴 수도 있다. 좀 더 스릴을 즐기고 싶다면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가는 카야킹을 할 수도 있다. 더운데 왜 일부러 땀나는 일을 자처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직접 체험해보도록. 땀으로 스트레스까지 배출되어 기분이 더욱이 상쾌하다.

## 10 원주민이 되어보는 시간 **캘리베이 투어**

맹글루브 나무 근처인 캘리베이 강을 따라 뗏목으로 만든 원시적인 유람선을 타고 가면서 강과 바다가 맞닿는 경이로운 광경을 감상할 수 있다. 원하면 뗏목을 조정하는 현지인과 함께 꽃게 잡이를 할 수 있으며 해변에서는 바릭 그리기와 독침 쓰기 등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현지인이 만든 음식으로 가볍게 시장기를 달래고 나면 아자수 아래의 그물침대에서 단잠을 자거나 바나나보트, 요트, 파도 타기 등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 11 영험한 산의 정기를 받는 **키나발루 산 트레킹**

코타키나발루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키나발루 산 트레킹이다.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오른 키나발루 산은 세계 동식물 종의 30%가량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학의 보고로 트레킹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희귀 동식물을 보며 원시 그대로의 숲을 걷는 재미가 남다른 곳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키나발루 산은 신록의 정글지대에서부터 종턱의 숲을 지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정상 부근까지 하루 일정으로 오를 수 있다. 오를 때는 힘들지만 처음 보는 동식물들을 볼 수 있고 도시에서는 맛보지 못한 맑은 공기를 들이쉬면 모든 어려움과 시름이 싹 달아난다.

## 12 아름다운 정원 산책 **UMS**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교정보다 몇 배나 더 큰 코타키나발루 국립사바대학의 교정 차를 타고 가도 한참을 달릴 정도로 건물과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교정 내에 학생들을 위한 큰 이슬람 사원까지 있다. 교정의 언덕 부위를 올라가다 보면 계단 양쪽으로 아름다운 정원이 갖춰져 있어 데이트를 즐기기에 좋다. 관광객들이 UMS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해양자연학과가 보유한 수족관 때문이다. 학생들의 연구를 위한 학과 시설이라 하기에는 규모나 보유하고 있는 바다 생물의 종류에 있어서 웬만한 관광지의 아쿠아리움 시설 못지않은 시설을 자랑한다.

## 13 에메랄드 바다와 하나되는 **만타나니 섬**

몰디브에 온 듯한 착각에 빠질 만큼 한적하고 눈부신 백사장과 잉크가 번진 듯 푸른 비닷물이 일렁이는 만타나니 섬. 전속력으로 달리는 모터 배를 타고 2시간 이상을 달려야 도달할 수 있으니 관광객들의 때가 그만큼 덜 타 깨끗하고 한적하다. 하루 평균 10명 정도만 방문을 하니 마치 섬 하나를 통째로 진세 낸 듯한 기분이 든다. 만타나니 섬의 아름다운 해변에 한 번 들른 마음은 스노클링을 하고 나면 더욱 부풀어 오른다. 알록달록 열대어와 웅장한 산호, 그리고 유이 솟으면 청정바다에서만 사는 듀공과 바다 거북이까지 볼 수 있다. 실컷 스노클링을 즐기고 나면 원주민에서 원주민들이 준비한 해산물 바비큐 요리까지 맛볼 수 있다.

## 14 전통 민속공연을 감상하며 먹는 **시푸드**

커다란 기재와 새우를 한국보다 저렴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동남아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다. 코타키나발루에서는 입뿐 아니라 눈까지 즐겁도록 민속 무용이나, 무예 등의 공연을 시푸드 레스토랑에서 선보이고 있다. 특히 탄중아루 리조트 바로 옆에 위치한 탄중비치라는 시푸드 레스토랑은 키나발루 산을 조상의 산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카다잔 두순족, 화려한 웃을 즐겨 입고 말 타기로 유명한 바자우족, 사냥의 달인으로 불리는 루트족 등의 원주민들의 화려한 댄스를 감상하며 시푸드를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공연의 열기가 무르익을 즈음이면 무용수들이 테이블을 돌면서 한 명씩 무대로 이끄는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원하는 사람들은 무대에 오를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전통 대나무 춤은 고무줄 놀이를 즐긴 한국 관광객들의 참여가 가장 높아 경쟁이 붙을 정도. 탄중비치 레스토랑은 탄중아루 리조트에서 택시로 기본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영업한다.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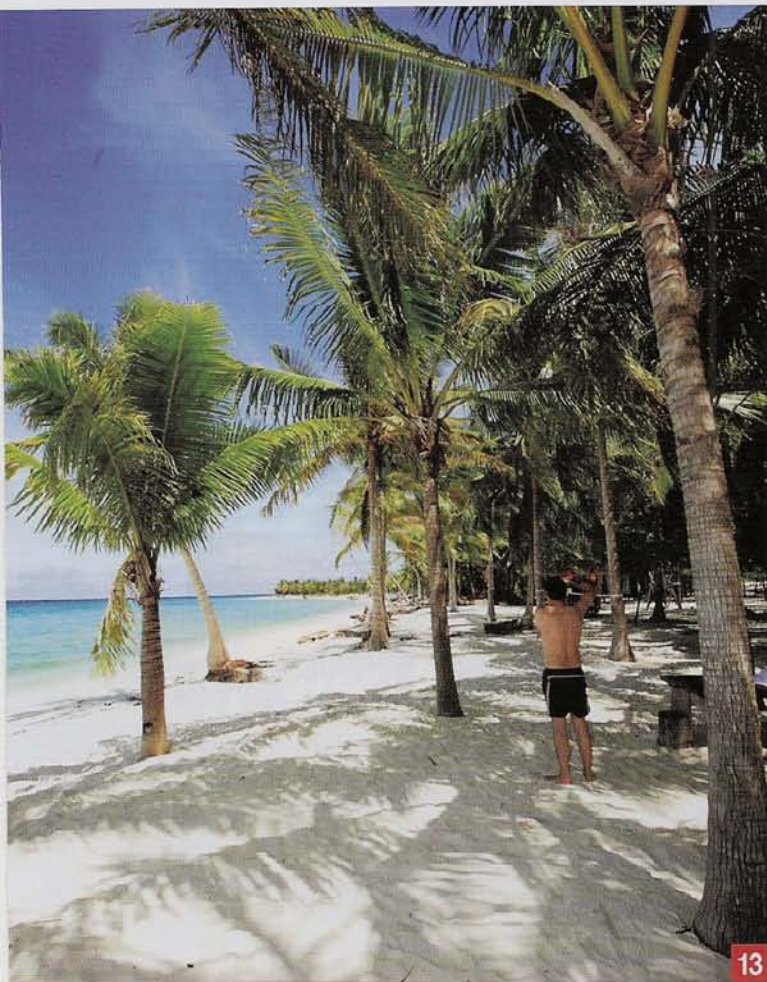
10



11



12



13



15



14

### 15 동심의 세계로 떠나는 클리아스 리버 투어

탄중아루 리조트에서 버스를 타고 2시간 정도 달리면 가라마에 도착한다. 여기서 간단하게 간식을 즐기고 6명 정도씩 보트에 나눠 타고 클리아스 강을 따라 크루즈하는 투어. 이곳의 볼거리는 자생력이 강한 맹글로브 나무와 독이 많고 환각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핑퐁 나무, 그리고 이곳에서만 산다는 긴 코를 가진 프로보시스 원숭이 등이 있다. 그리고 해가 지면 크리스마스트리처럼 반짝거리며 빛나는 반딧불도 볼 수 있다. 프로보시스 원숭이는 겁이 많아 사람이 보이면 급히 숨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기는 힘들다. 대신 배를 타기 전 잠시 머무는 룯지 주위의 긴꼬리 원숭이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모여 앉아 있으므로 가까이서 구경할 수 있고 먹이도 직접 건네줄 수 있다.

### 16 해양 레포츠의 천국 라군 파크

해양 공원인 라군 파크는 잔잔한 바다와 강이 맞닿는 삼각주에 위치한 해양스포츠 센터로 바나나보트, 카누와 카약, 윈드서핑, 페달보트 타기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스피드보트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원주민 바자우족의 생활을 보고, 맹글로브 나무숲에서 서식하는 야생 긴코 원숭이를 비롯한 동물들을 만나볼 수도 있다.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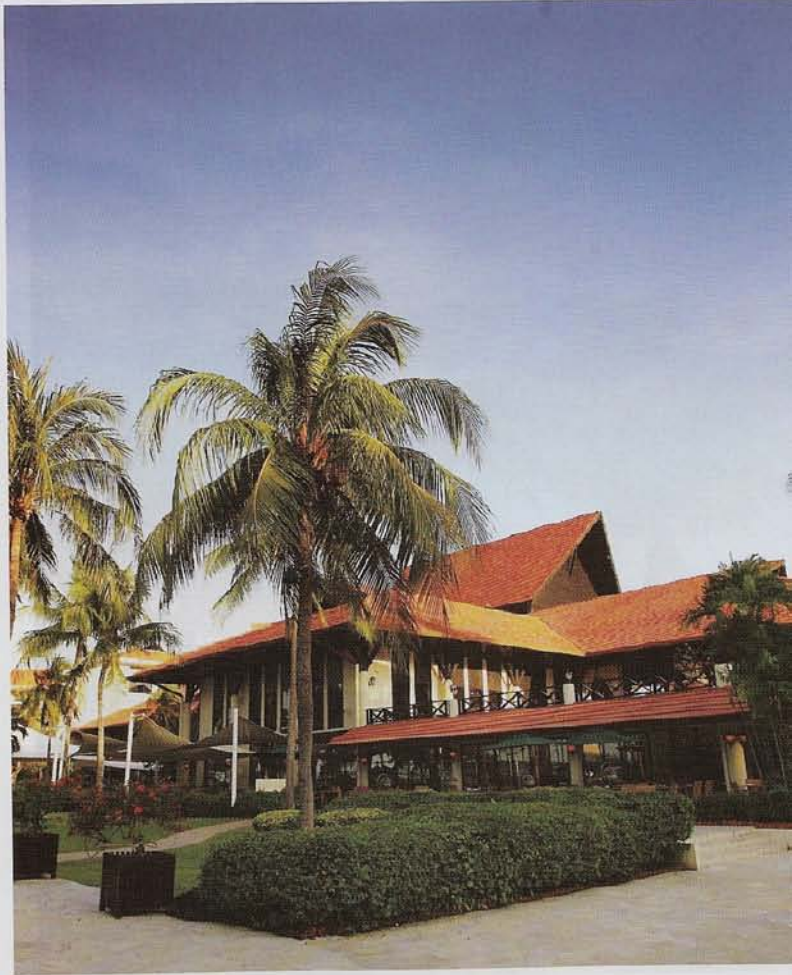
## 17 코타키나발루 최고의 리조트 상그릴라 탄중아루 리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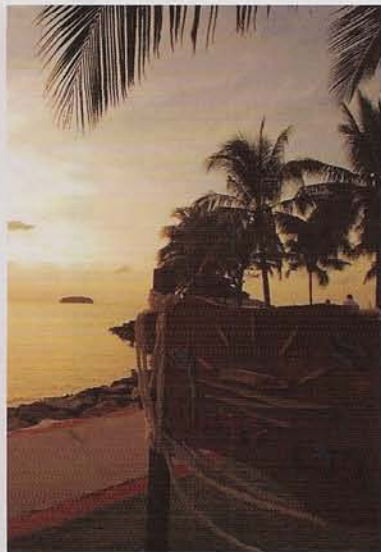
공항과 시내 중심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탄중아루 리조트는 주변의 섬 투어나 코타키나발루 주요 관광지 투어를 하기에 적합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특히 도심 속에서 아름다운 코타키나발루의 선셋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명소로 유명하고 주변에 한식당을 비롯해 시푸드 레스토랑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그래서 휴양과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객들보다 젊은 자유 여행객이나 로맨틱 허니문러들에게 인기가 많은 리조트다.

탄중아루 리조트는 남중국해와 탄중아루 해변을 바라보는 4층 건물인 탄중원과 키나발루 산을 배경으로 하고 크로커 레인지와 툰구 압들라만 제도를 바라보고 있는 7층 건물인 키나발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객실은 자연 목재와 대나무, 그리고 전통적인 양식을 이용하여 이국적인 분위기로 꾸며져 있고 모든 객실에는 발코니가 있어 탁 트인 정원과 바다 그리고 주변의 섬들을 볼 수 있다.

더불어 호라이즌 클럽룸은 GRO의 에스코트를 통해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객실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할 수 있다. 호라이즌 클럽룸은 키나발루원 딜럭스룸과 동일한 형태의 객실로 전용 라운지 서비스만을 제공받는다. 호라이즌 클럽 라운지에서는 비즈니스를 위한 비서 업무와 손님 접대를 위한 개별적인 미팅룸까지 제공되며, 라운지에서는 다양한 신문과 잡지, 보드 게임 등이 준비되어 있다. 매일 아침 맛있는 음식과 과일주스, 차와 커피 등의 음료가 별도로 클럽라운지(키나발루원 6층)에서 제공된다.

**부대시설** 탄중아루 리조트에는 세 개의 수영장과 네 곳의 테니스장, 나인 홀 피치 및 퍼트 골프 연습장과 각종 장비가 가득한 헬스클럽 등이 있다. 또한 리조트 앞 바닷가에 선착장을 가지고 있어서 마리나 센터를 통해 세일링, 윈드서핑, 수상 스키와 수영, 스노클링 및 스쿠버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수영장** 탄중아루 리조트의 수영장이 다른 리조트와 비교해서 최고로 꼽히는 이유는 유아용 풀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유아용 수영장Padding Pool에 차양막이 있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약한 아이들의 피부 손상을 막을 수 있고 성인 수영장과 바로 붙어 있어서 어른들도 자유롭게 수영을 즐기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 또한 탄중아루의 유아용 수영장은 어린이가 천천히 물 높이에 적응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안전성면에서 우수한 경력이 있는 풀장이기도 하다.

**신사인 키즈 클럽** 탄중아루의 키즈 클럽은 4살에서 12살까지의 어린이들이 지루할 틈 없이 즐길 수 있는 재미난 프로그램과 시설이 갖춰진 공간이다. 장난감방, 프로그램 운영방, 놀이방 등 3개로 구분되어 운영되는데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코타키나발루에서 제일 우수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부모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언제든지 아이들을 맡길 수 있으며, 부모 자격증을 갖춘 직원들이 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아준다.

**레스토랑** 탄중아루 리조트 키나발루링 1층에 위치한 중식 전문 레스토랑 상 펠리스Shang Palace는 코타키나발루에서 가장 유명한 중식당으로 꼽힌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중국 정통 dimsum과 면류를 즐길 수 있다 보니 점심시간은 외부 손님들까지 몰려 빈자리가 없을 정도다. 특히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요리를 경험할 수 있어 리조트에 머무는 한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레스토랑이다.

**선셋 바** 코타키나발루 최고의 명소로 꼽히는 탄중아루 선셋 바. 아름다운 일몰 시간에 선셋 바에 앉아 시원한 맥주 한잔을 마시면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까지 든다. 황홀한 석양을 감상하기 위해 몰려드는 관광객이 많으므로 보통 해가 지는 시간인 6시보다 30분 정도 먼저 가자이 전망 좋은 좌석을 차지할 수 있다. 황홀한 선셋 포인트로 코타키나발루 사람들을 비롯해 유럽 여행객들에게는 프리포즈의 장소로 알려져 있다.

**치스파** 2007년 11월에 오픈 한 탄중아루 리조트 내의 치스파CHI Spa는 심신의 균형과 조화를 회복시킨다는 전통적인 치료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바다 가까이에 섬 형태로 지어진 치스파 빌리지는 스파 빌라, 스파 라운지, 스파 부티크, 요가 파빌리온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그릴라 호텔 중에서도 가장 이색적인 스파 빌리지가 할 수 있다. 스파 빌라는 탈의실과 샤워시설, 증기사우나 시설을 완비한 8채의 빌라로 구성됐으며, 그 중 3채는 허니문을 타깃으로 개별정원과 야외욕조시설을 갖춘 커튼빌라로 꾸며 탄중아루 리조트를 찾는 허니문녀들이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자유롭게 치스파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스파 빌리지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곳은 요가 파빌리온으로 전원이 유리로 둘러싸인 팔각형의 요가빌리는 남중국해의 푸른 바다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전망을 자랑한다. **T**

**HANA Tips** :: 하나투어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전통 체험과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AMP105] [친 일정 식사 포함] 코타키나발루 탄중아루 리조트 5일/6일 [골드]와 [AMA105] [아이월] 코타키나발루 탄중아루 리조트 5일/6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 www.hanatour.com

